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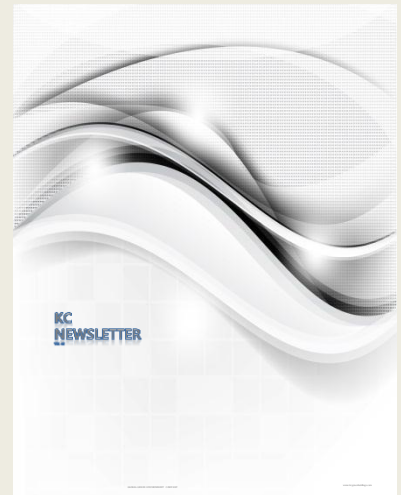


# KC KC NEWSLETTER VOL. 42

## FROM THE EDITOR

금번 2월은 구정 연휴와 발렌타인 데이라는 기분 좋은 날들이 많이 있었던 한 달인 것 같습니다. KC 모든 가족들의 가정에도 기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달 뉴스레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 이번 달은 지난 달에 비해 조금 모자라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KC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식을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뉴스레터에 많은 관심 보여 가져주시고, KC 뉴스레터에 기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뉴스레터 편집팀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을 맞이하신 가정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KC뉴스레터도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 오겠습니다.

뉴스레터 편집팀 배상



### KC GreenHoldings

지원팀 이상민 팀장

지원팀 하혜진 사원

### EPC

기술연구소 홍정희 팀장

해외사업부 염동균 선임

해외사업부 김재수 선임

제철사업부 김규백 대리

재경팀 이강호 대리

전략구매팀 정희정 사원

지식경영팀 이상한 사원

### Environmental Service

KCLS 정문택 상무

EcoCycle 서정철 부장

KCHM 최성관 차장

KCHM 박은향 사원

KCES 이정식 과장

KCEC 김유화 사원

CHKOR 조은주 차장

### Manufacturing

NWL-P 정행순 차장

CHKOR 조은주 차장

AGLS 홍세라 주임

### Renewable Energy

KCEN 이유미 사원

### 우리의 새로운 목표, 이제는 다 함께 전진할 일만 남았다.

2013년 목표

수주 3,000억

매출 3,500억

영업이익 190억

2013년 유로존의 회복이 늦어지고 미국의 재정감축에 따른 리스크도 계속될 전망



지난 1월 28일, KC코트렐의 새해 목표를 전 사원과 함께 공유하였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작년보다 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KC코트렐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수 차례 검토를 거친 후, KC코트렐 서동영 부사장의 발표로 전 직원들이 2013년 공동의 목표를 알게 되었다.

작년도인 12'년도 수주매출영업이익실적과 13'년 계획안에 관하여 본사 지하강당에서 관련 발표회를 가져 본격적인 실행계획 돌입에 나섰다.

이번 한 해 KC코트렐은 수주액 3000억, 매출액 3500억, 영업 190억을 책정하여 목표를 삼았다.

*IMF 2013년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유로존의 회복이 늦어지고 미국의 재정감축에 따른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 지난해 2012년 10월 보고서에서 발표한 전망치(3.6%)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임.*

*선진국 진영 가운데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을 포함한 이른바 아시아 신흥개발국(NIEs)의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3.2%와 3.9%로, 각각 0.4%포인트와 0.2%포인트 하락, 경제위기 리스크의 현실화, 유로존 침체, 미국의 과도한 재정감축 등 상존하고 있는 하방 리스크에 대해 정책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

## 포스코패밀리 공정거래 준수 서약식

25개 출자사 동참  
설비발주 모범기준 준수  
협력사 불공정 행위 근절 등 결의



포스코는 1월 31일 공정거래 선도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사업 기회 확대 지원과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포스코패밀리 공정거래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약식은 포스코 및 출자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월례 사장단 회의에서 진행됐으며 정준양 회장을 비롯해 대우인터내셔널·포스코건설·포스코에너지 등 25개 출자사 대표들이 모두 동참했다.

서약식에 참석한 출자사 대표들은 경쟁입찰과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포스코패밀리 설비발주 모범 기준 준수, 협력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공정거래법 준수, 윤리경영 실천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 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 기준' 공지에 맞춰 국내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포스코패밀리 설비 발주 모범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3불(불균형-불공정-불합리)'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모범 기준에 따르면 출자사가 공급사를 선정할 때 장애인 기업·사회적 기업 적합 품목을 우선 발주하고 중소·중견기업 직발주 품목 확대를 통해 발주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출자사 수의계약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단일 공급사에 의존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사 DB'를 활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 발주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일 경우에 경영지원 부문장이 주재하고 구매지원센터장 외 4명의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을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적용해 불합리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 포스코의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KC코트렐에 날개를 달아준다.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



협력사 설비기술 설명 듣는 포스코 직원 KC코트렐 서동영 부사장(오른쪽)이 경기 안성시 공장에서 포스코 동반성장사무국 구현록 그룹리더(오른쪽에서 두 번째)에게 집진 설비에 적용된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KC코트렐은 회사의 역량을 높여주는 포스코의 지원 덕분에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포스코 제공

공장의 먼지와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환경설비 제조업체 KC코트렐은 2005년까지만 해도 연 매출액이 668억 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었다. 환경설비는 불황에 기업이 가장 먼저 줄이고 호황에는 가장 나중에 증설해 불황을 잘 ‘타는’ 업종이다.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이 회사는 3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7년 전의 5배 수준이다. 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 진출하며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했다. 6일 찾은 경기 안성시 서운면 KC코트렐 공장은 갑자기 내린 폭설에도 집진기 시설을 생산하는 직원들로 분주했다.

이처럼 KC코트렐이 불황을 딛고 급성장한 배경에는 포스코의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있다. 포스코는 오스트리아, 일본 등 해외업체로부터 납품받던 제철소 내 유해가스 처리 설비를 2005년 KC코트렐에 맡기면서 이 회사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포스코는 KC코트렐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KC코트렐이 새로운 기술을 포스코의 제철소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가 협력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3월 동반성장사무국을 출범시킨 후 KC코트렐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인사, 재무, 세무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졌고 효율적인 공장 운영 아이디어도 제공했다.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방법을 조언하기도 했다.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외 진출을 망설일 때는 현지 사정에 대한 사소한 정보까지 공유했다.

포스코의 지원은 KC코트렐에 ‘날개’를 달아줬다. 포스코에 인정받는 협력사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에 타르 집진기를 수출하는 등 해외 매출이 급증했다.

“포스코의 지원으로 우리 회사도 협력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다. 포스코의 지원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고리를 더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KC코트렐의 매출에서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35.3%에서 지난해 19.3%로 떨어졌다. 포스코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KC코트렐 서동영 부사장은 “포스코의 지원으로 우리 회사도 협력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다”며 “포스코의 지원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고리를 더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구현록 동반성장사무국 그룹리더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철강사의 협력업체들이 전자, 자동차 분야 대기업 협력업체와 달리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협력사들은 제품에 들어갈 부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제철소 설비를 보수하거나 정비 관련 자재를 납품해 연 매출이 평균 100억 원대에 그친다. 포스코는 협력사의 경영이 안정돼야 포스코의 사업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스코의 지원을 받는 1차 협력사는 200여 곳, 2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1300여 개에 이른다. 포스코 전 계열사 임원 263명이 한 달에 한 번 경기, 경북 포항, 전남 광양에 있는 협력사들을 정기적으로 찾아 인사, 재무, 법무 등 경영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 처음에 “임원들이 감시하러 오는 것 아니냐”며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던 협력사 대표들도 지금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대화 창구로 환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4월부터 포스코경영연구소 박사급 연구원 50명을 협력업체에 보내 경영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 포스코와 육성 협약 맺은 KC코트렐 중견기업 진입

‘피터팬 증후군’없이 모범적인 중  
견기업으로 성장



2005년 매출 668억원이던 KC코트렐은 지난  
해 4배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일궜다.

포스코는 글로벌 육성 협약을 맺은 30여개 중소기업 가운  
데 KC코트렐 비에이치아이 등 4곳이 올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거래 중소기업 가운데 30여곳을 선  
정해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세계적인 경쟁  
력을 갖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키운다는 취지에서다. 비  
에이치아이와 KC코트렐은 지난해 각각 4800억원과 3000  
억원의 매출을 올려 3년 연속 매출 1500억원을 넘어서면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게 됐다.

KC코트렐은 2005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의 유해  
가스를 처리하는 환경설비 제작에 참여하면서 포스코와 인  
연을 맺었다. 소결은 철광석이나 석탄을 덩어리로 뭉치는  
과정이다. 포스코는 오스트리아 일본 등의 해외 업체들이  
해오던 작업을 과감하게 중소기업인 KC코트렐에 맡겼다.

포스코와 KC코트렐은 배기가스 청정설비 국산화에 성공했  
고 특허까지 받았다. 2005년 매출 668억원이던 KC코트렐  
은 지난해 4배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일궜다.

포스코 동반성장사무국 관계자는 “4개 지원 업체는 세제  
등의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에 머무는 ‘피터팬 증  
후군’ 없이 모범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 남부발전 초청 세미나 기술연구소 참여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개미산 전환” 연구개발, 서강대학교와 공동개발 참여

### KC코트렐 영흥화력 수주

영흥화력 5,6호기 전기집진기

남부발전은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개미산 전환” 이란 연구개발을 2012년 4월부터 시작하여 약 1년 여간의 연구를 끝으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개미산 제조 현황 조사 및 전환 기술 경제성 평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29일 특별히 KC코트렐, 서강대학교를 초청하여 본 과제의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0.5kg/day 개미산 생성 실험실용 prototype 제작 및 운전  
에 관한 개발에 관하여는 서강대학교 공동개발 참여로 진행되고, 국내외 CO2 전환기술 동향분석,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개미산 제조 현황조사 전환 기술 경제성 평가, 실증용 Pilot설비구상 등은 KC코트렐 기술연구소에서 참여하게 되었다. 향후 공정된 최적화 기술이 도입되는 과제를 남겨두고 이산화탄소 개미산 변환 관련 1차년도 최종발표회의를 일단락 마무리시켰다.

KC코트렐은 2월 5일 영흥화력 5, 6호기 전기집진기 공사를 314억3800만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수주금액은 최근 회계연도기준 매출액의 14.87%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 한라산 등반 및 워크샵

“GO ! 한마음으로 꿈을 향하여”

(제주 워크샵)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희망찬 2013년 1월 18~20일, “GO ! 한마음으로 꿈을 향하여”란 슬로건을 내걸고 제주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제주에서의 둘째 날 한라산 등반을 앞둔 우리는 새벽 5 시반에 기상하여 뽕뽕 얼어있을 한라산(해발 1950m)을 생각하니 살짝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명산은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란 말이 있듯이 정상으로 가는길은 멀고도 험난했고 힘들었지만, 꿈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으로 정상을 정복 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명산이다 보니 등산객들로 산은 가득 메워졌고, 주변 경치 또한 아름다움의 절정에 이르며, 그야말로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장 9시간에 걸쳐 산행을 마칠 수 있었고, 한라산을 뒤로하며 2013년 우리의 꿈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았습니다.

제주에서의 셋째 날 우리는 한국남부발전 남제주화력에서 2012년 프로젝트 종결보고 및 2013년 사업계획에 대한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단일부지 내 세계최대 태양광 프로젝트 르노삼성 부산공장 태양광 발전소 건설 완공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한마음 한 뜻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이태영 사장님께서 격려 해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의 맑은 공기와 물과 한라산 정기를 받아 좋은 기운으로 워크샵을 무사히 마무리하며 우리는 꿈을 향해 또 달려 나갈 것입니다.

KC솔라에너지 파이팅!!

## [안성유리공업]‘유리용기 성형용 몰드관련’특허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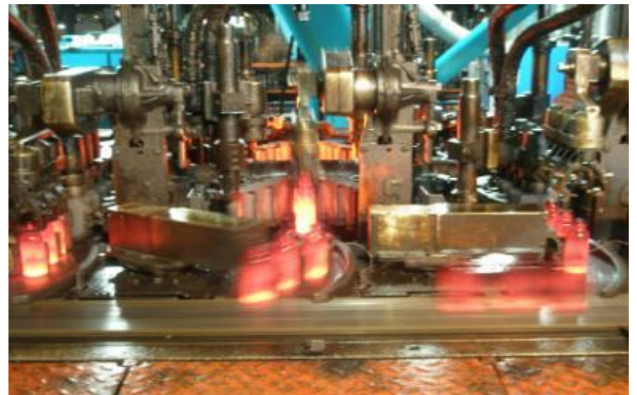
안성유리는 2012년 12월 24일 유리병 성형시 사용되는 금속 mold 내면의 ceramic coating 기술 관련하여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특허명은 “유리용기 성형용 몰드의 코팅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표면이 코팅 처리된 성형 몰드”이며, mold 내표면에 ceramic coating을 적용함으로써 유리병 성형시 기존의 1시간 2회 swabbing(기름 칠) 횟수를 50%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품품질향상 및 작업장 안전위생과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정기술입니다. 당사는 앞으로 이 특허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적용성을 높이고 상용화하는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성유리는 기술연구소 설립 이후 이번 특허 취득 외에 “유리병 검사기“, “환경오염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등 특허 4건을 취득 하였으며, 향후에도 기술개발을 통한 특허 취득 뿐 아니라 회사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융합기술개발에 노력 할 것입니다.

안성유리공업 경영관리팀

홍세라 주임



성형 mold내 표면에 ceramic coating  
유리병모양의성형몰드

### [안성유리공업] 2012년 정기산악회 - 태백산 눈꽃축제를 가다

지난 11월 통영사랑도의 넓은 바다와 지리산의 알록달록한 단풍소식을 전해드린 게 엇그제 같은데, 동장군이 물러가는 겨울의 끝자락의 설경을 안성유리 산악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산행은 태백산(1,567m) 고원지대의 순백의 눈과 장엄한 일출 그리고 눈꽃을 테마로 눈조각 전시 등이 진행되는 눈꽃축제와 함께 하여 겨울의 모든 것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5일(금) 저녁 8시 기차에 올라 제천까지 열차 여행 후 태백까지는 버스로 이동, 찜질방에서 휴식 후, 4시 기상 및 조식, 5시 산행을 시작하는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태백산 일출을 보고 무사히 하산하여 가슴 가득 좋은 기운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겨울 산행시에는 등산화, 장갑, 고글, 아이젠, 스페츠, 방한 마스크, 스틱 등의 장비를 완벽히 준비해야 산행 중 사고를 막을 수 있으며, 초보자는 무리한 겨울산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월에는 철쭉향기 가득한 봄 산행을 계획하고 있으니 안성유리 임직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KC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안성유리공업 경영관리팀      홍세라 주임





## KCI

### Nol-Tec Systems 홈페이지 새단장

놀텍 시스템즈는 [www.nol-tec.com](http://www.nol-tec.com)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였다. 새로운 디자인과 구조로 편의성을 증대 시켰으며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완성하였다. 잠재적 고객들을 위한 검색엔진 기능을 강화 시켰으며 보다 쉽게 페이지 내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금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앞으로 좀 더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기위한 변화의 시작으로 새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고객 뿐만 아니라 잠재적 고객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 CLESTRA-Hauserman

### 아름다움과 함께한 창립 100주년

1913년 창립한 클레스트라 하우스먼 그룹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1913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사무실과 복합빌딩의 철제 이동식 칸막이, 천장재 및 Clean Room, 인테리어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제공한 클레스트라 하우스먼은 홍콩, 일본, 중국 및 호주 법인을 인수 또는 설립하여 다국적기업으로의 위상을 다져왔다.



### MBC의 새 모습과

### 함께하는 CLESTRA Korea

CLESTRA Korea는 한국 최대 방송국 중 하나인 MBC와 벽 외장재 및 이동식 칸막이 공급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 6월까지 2,200m<sup>2</sup> 이상의 외장재와 2,200lm의 칸막이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금 번 계약은 그 동안 CLESTRA Korea 이 보여준 고품질의 제품과 과거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체결할 수 있었다.



## 나는 니가 할 일을 알고 있다.

K-ONE은 정해진 모습이 없다.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해간다.

약간은 구시대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고, 어머니는 돈을 관리하고 집안을 관리한다. 두 역할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외의 균형이 중요하다.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위해 밖으로 나간다면 지원팀은 회사 내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 (물론, 회사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부서는 기획팀, 재경팀도 있다.) 자식이 늦지 않게 학교에 보내고,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주는 어머니처럼 지원팀은 타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원팀 K-ONE의 핵심은 바로 “일정”이다.

“다음주까지 제출해야 되네. 잘 하고 있지?”

지원팀 이상민 팀장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지원팀 CoP의 “일정관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늘은 무슨 일을 마무리 해야 하고, 어떠한 중요 사항이 있는지 팀원들의 업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NE 도입 이전에는 개별로 달력에 업무를 표시해 놓아 누가 무슨 일을 언제까지 하는지 쉽게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CoP를 만들고, 개개인의 업무 일정을 입력해 놓은 지금은 한 눈에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일까?”

사실 지원팀이 처음부터 일정관리를 잘 활용한 것은 아니다. K-ONE 도입 초기에는 기존 자료 이관 회의를 통해 지원팀의 활용 방향을 설정하고, 자료 축적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료가 쌓이면서 다음 활용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나온 것이 일정관리이다.

특히 지원팀의 하운아 사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일정관리 기능을 활용하면서 다른 팀원들에게 일정관리 기능의 편리함을 전파하였다. 달력을 통한



수기 일정관리에 한계를 느끼던 찰나에 지식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어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는 하윤아 사원의 일정 등록은 남들과 다른 무엇이 있었다.

단순히 언제까지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일정에 대한 세부 내용, 진행 사항 등 일정만 보고도 일의 진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관리를 하고 있었다. 좋은 것은 가리잡고 배우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지원팀의 나머지 팀원들 역시 다른 팀원을 위한 일정 관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일정관리뿐만 아니라 자료 이관 작업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원팀 CoP는 비록 순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용한 강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관리 기능의 활용을 본다면 앞으로 지원팀 CoP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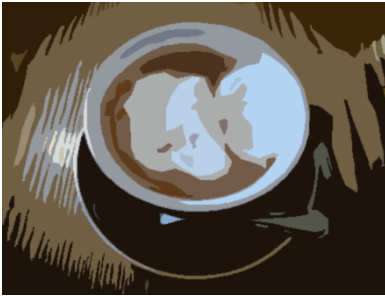
K-ONE은 지식경영시스템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형화된 다른 시스템과는 다르다. 사용자의 사용방법에 따라 그 모습을 변화해가고 진화해 간다. 똑같은 시스템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해간다. 지원팀 K-ONE의 얼굴은 일정관리이다. 기술 연구소의 얼굴은 CoP였으며, 기술서비스팀의 얼굴은 Project Room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쓰는 K-ONE은 어떤 모습일까?

## 글 KC 코트렐 지식경영팀 이상한 사원

2013.02							월간	주간	일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7	28	29	30	31	1	2			
16:00 영한 인쇄	11:30 카자흐스탄 복수비자 발급 15:50 연말정산 작성 2013년 설 명절 선물 배송 시작 10:00 화환선정 및 경조금 기프 10:50 호텔항공 서류 결제 및 우편발... 10:50 우편물 전달 11:10 케이틀공사 기프 확인 11:20 차량 리소스 등록	15:50 연말정산 작성 16:40 안성상공회회소 회비자료 발송 16:50 포스코 동남공장 전관 입회 방문 15:40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16:40 안성상공회회소 회비자료 발송 16:50 계약서 변경안 작성 16:50 생활문화상품권 전달 법원카드 사용역 기프 15:30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16:50 계약서 변경안 작성 16:50 생활문화상품권 전달 인턴사원 광양한강 견학 인턴사원 광양 한강 인턴 11:00 풍무원 단가 인상 상의 11:30 과태료고지서 전달 11:30 골기호출기 수령 14:00 매월기프 내역 수정 16:10 계산서 전달 16:20 사내번호 수정 16:50 경조금 드래거	16:40 안성상공회회소 회비자료 발송 16:50 계약서 변경안 작성 16:50 생활문화상품권 전달 16:40 4층 기술연구소 이사 11:10 우편물 전달 13:30 로트별 법인카드 기프 마감 15:30 샌드위치 주문 17:10 화환선정 및 경조금 기프				
3	4	5	6	7	8	9			
11:30 카자흐스탄 복수비자 발급 14:00 선택특리비 마감	14:00 선택특리비 마감 09:50 평양선정 및 사내번호 수정 10:10 호텔법인카드 기프 마감 14:10 코트렐 세금계산서 확인 15:30 골기호출기 수령 15:40 경조금 전달	11:40 주매원 비자 진행 15:40 사내번호 확인 및 수정 09:40 제비내역 확인 09:50 안성공공청 보물 서류 전달 09:50 여권 받기 15:10 초창광 비물 기프	연차	11:30 카자흐스탄 복수비자 발급 17:10 여권 발송					
10	11	12	13	14	15	16			
11:40 주매원 비자 진행 15:40 사내번호 확인 및 수정 10:00 설 선물 확인			11:40 주매원 비자 진행 15:40 사내번호 확인 및 수정 10:00 설 선물 확인 KC코트렐, KO그린홈즈 영업보고... 11:10 회합신청 11:30 비밀번호 확인 요청 14:30 보험증권 발송 15:20 리프트 예약 17:20 선택비 상용권 전달	10:00 설 선물 확인 09:30 리프트 예약 09:40 리프트 객실요금 정리 15:20 홈달스 예산 확인 15:30 더론 유지보수비 연장 16:50 경조금 기프	15:40 사내번호 확인 및 수정 09:30 동무등돌기 발급 11:00 야근전표 작성 13:20 임원밴드폰요금 정리				
17	18	19	20	21	22	23			
사내번호 메일발송 이커운트 기프 속이름 기프 화환선정 임원회의 준비				주출 안전 확정 기한 KC코트렐, KO그린홈즈 영업보고...	KC코트렐, KO그린홈즈 주주총회...				



밀로의 비엔나 커피



## Millo Coffee Rosters 밀로커피 로스터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70-32
전화	02-554-3916
운영시간	오전 11시~자정

글 지식경영팀 이상한 사원

“휘핑크림 빼고 주세요” 높은 칼로리 덕분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응당 휘핑크림을 빼곤 한다. 하지만, 여기 “밀로커피 로스터스”에서 크림을 빼다면, 그것은 다이어트를 떠나 최악이다. 커피를 시켜놓곤 연신 스푼으로 크림만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미 “밀로커피로스터스”의 매력에 빠진 것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림이 입안에서 녹는다는 말이 바로 이 곳의 크림을 위한 수식어이지 않았을까. 자그마한 매장에 들어서서는 순간, 세월의 흔적과 장인의 포스, 그리고 젊은 감성패션으로 무장한 사장님을 보게 된다면, 왠지 이 곳의 커피는 멋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바리스타들의 벤츠인 라마르조코 머신도 그저 익숙한 기계처럼 보이는 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멋과 자신감이 베어있는 사장님 때문이 아닐까.

이 곳 밀로커피에서 크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하고 묵직한 제대로인 에스프레소, 그리고 환상적인 커피와 어울리는 아포가도, 럼이 아닌 보드카 베이스로 만든 모히토... 작은 매장에 이리도 알려주고 싶은 메뉴들이 많다니.

“도대체 여기 머가 맛있어요?” 흔히 음식점에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손님이 맛있다는 것” 이다. 직접 이 곳 “밀로커피로스터스”에서 맛있는 음료를 먹어보길 바란다.

## 炒馬 초마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7-18
전화	070-7661-8963
운영시간	정오~오후 9시

점심시간, 저녁시간 할 것 없이 이곳의 불 맛나는 짬뽕을 먹기 위해서는 딱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째, 매장이 오픈하기 전에 가서 줄을 서거나, 둘 째, 그냥 가서 기다린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줄까지 서서 먹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드는 이 집의 짬뽕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전화 예약도 받지 않고, 오로지 직접 줄을 서야만 맛 볼 수 있는 이 곳. 이름을 밝힐 수 없는 8층의 유일한 남자 대리는 “초마”의 “초”라는 말만 나와도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정도로 “초마” 사랑에 빠져있다. 사실 이 곳은 송탄 영빈루의 홍대 분점이다. (송탄 영빈루의 손자가 사장) 그래서인지 불친절함의 대명사인 영빈루의 피를 물려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리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기다리고 음식을 주문하고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 곳의 원칙!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 주문과 동시에 조리된다는 안내장을 보면서 조금 더 굼주린 배를 부여잡고 기다리다 보면 초마의 짬뽕을 만날 수 있다. 기존의 짬뽕과는 달리 기름기도 적고, 약간은 삼삼하며 담백한 맛이 강한데 비해 얼큰함은 떨어진다. 하지만 기존 짬뽕에 비해 건더기의 양은 비교 불가다.

이 곳 짬뽕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불 맛”이다. 국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불의 흔적들, 어떤 조리비법을 쓰는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불 맛”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다른 메뉴인 탕수육은 캐첩 소스가 아닌 새콤달콤한 투명한 소스가 나온다. 바로 튀긴 바삭함과 멀건 소스의 조화는 동네 중국집과 비교해 절대 甲이다. 그리고 나머지 메뉴인 잡채밥은 먹어보지 않았으므로 평가할 수 없다.

호불호가 갈리는 “초마”의 짬뽕,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 2013 INTERNSHIP KC COTTRELL

2013년 계사년을 시작하며 5명의 동계 인턴들이 KC코트렐을 만나러 왔습니다.  
20대의 열정으로 KC코트렐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턴들이 전하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전합니다.

Siyoung Jang  
Finance & Accounting

Jiyeon Kim  
Overseas Business Div.

Jiin Jung  
Corporate Planning

Ulugbek  
Power & Industrial Plant Div.

Jongho Kuk  
Iron & Steel Div.



『냉정과 열정 사이』Between calm and passion』  
그리고 『피렌체』Firenze』

“피렌체의 두오모는 연인을 위한 곳이야.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곳이지.” - 냉정과 열정 사이 中 -



-기획팀 인턴 정지인

**피**렌체, 영어명 플로렌스(Florence).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의 수도. 명칭은 ‘꽃 같은 도시’라는 뜻. 도시를 성별로 구분할 수 있다면, 피렌체는 예부터 ‘로마의 딸’이라 불리었으니 **【女】**. 일본 작가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를 읽은 사람이라면, 유럽여행 계획에 망설임 없이 포함시키게 되는 이탈리아의 도시. 또한 나처럼 소설에 온 감정을 이입해 울고 웃는 등의 온갖 청승을 부리며 여러 번 읽은 사람에겐, 주인공 준세이와 아오이가 10년 만에 재회하는 피렌체의 두오모는 이탈리아 여행의 목적이 되기도.

**너**무 덥다. 로마에서 출발하여 피렌체까지 오는 동안 지겹도록 겪은 이탈리아의 습하고 뜨거운 7월. 피렌체의 두오모에 오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미친 듯이 늘어선 줄의 맨 끝에 서는 일이었다. 한숨이 나왔다. 유럽 여행의 성수기 중에서도 악명 높은 7월 말에 갔으니 어느 정도 인파는 예상했었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을 떨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줄은, 길어도 너-무 길었다. 기다리다 일사병으로 큰일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진은 정말이지 그렇게 예쁘게 나올 수가 없다. 혼자 떠난 여행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이탈리아에서의 셀카만 수 백장인 이유 중 하나다.

**Tip 1.** 더워도 습해도, 그래서 짜증이 나도(사실 동행이 없으면 짜증 부릴 일도 없으니 괜찮다), 피렌체는 ‘여름’이 좋다. 진짜 하늘색과 제대로 된 피렌체의 빨간 지붕을 사진에 가득 담아올 수 있고, 그 선명한 여름의 색은 당신을 화보 속 ‘김태희’ 또는 ‘장동건’이 되게 해 줄 것이다. (물론, 개인차 있음)



산타 크로체 성당. 갈릴레이, 미켈란젤로 등 피렌체출신의 유명 예술가들의 무덤이 있는 곳. 피렌체의 성당은 대부분 순백색이라 여름에 더욱 예쁘다.

피렌체의 상징, 빛바랜 빨간 지붕들



**사**실 피렌체 두오모 근처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쿠폴라(똥)에 오르려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쿠폴라 옆 지오토의 종탑에 오르려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턱대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는 (나처럼)두 시간이 넘도록 줄만 서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물론 종탑에서 바라보는 쿠폴라도 멋있다. 특히 두오모 쿠폴라를 사진에 담고 싶다면, 필히 지오토의 종탑에 올라야 한다는 것!

소설 『냉정과 열정사이』를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만나는 쿠폴라는 매우 넓어 보인다. 당연히 한산하고, 사람들도 몇 없다. 그러나, 이 장면을 기대하고 가면 실망할 수 밖에 없다. 현실로 만난 쿠폴라는 생각보다 좁은데다 여행객들로 늘 붐비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눈을 돌려야 한 자리를 차지하고 마음껏 셔터를 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피렌체 두오모 라고 불린다. 명칭의 뜻은 ‘꽃의 성모 마리아’

▶쿠폴라의 백색 기둥들 사이로 보이는 피렌체의 전경.그리스 신전 같기도 하고, 머릿속이 순간 깨끗해지면서 신선이 된 듯한 느낌과 함께, ‘아 내가 드디어 여기에’라는 생각에 괜히 콧등이 시큰, 눈물이 절끔. 연인과 함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하던 찰나, 한쪽 구석에서 꾸깃한 사진을 보며(아마도 헤어진 연인?) 대성통곡 중인 한 여성을 발견하고는, “그래 나는 괜찮다”를 조용히 외쳤었다. 혼자든 함께든, 두오모에서 내려다보는 피렌체의 시간은 멈추어 있으니 마음껏 사색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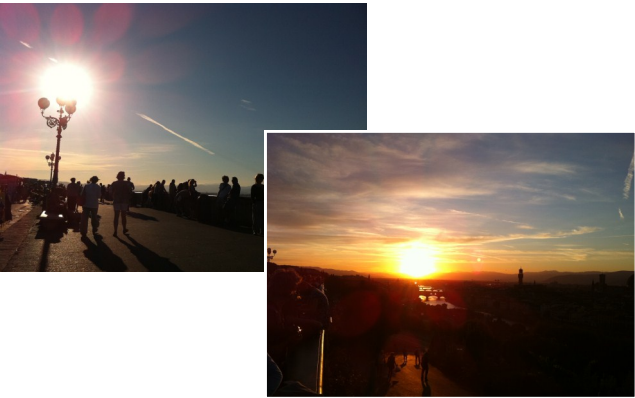
아쉬웠던 점은, 저 순백의 기둥에 너무 많이 보이는 한글들. “ㅇㅇㅇ야 사랑해!”, “ㅇㅇ다녀가다” “사랑은 연인의 귓가에 속삭여주세요. 세계적인 건축물에 쓰시면 아니 아니, 아니 되오!”

**Tip2. 두오모 쿠폴라까지는 돌계단 463개를 올라야 한다.** 개수도 많거니와 가파른 경사를 자랑하니, 늘씬한 다리로 사진 속에서있고 싶은 마음 굴뚝같더라도 ‘하이힐’은 아니 될 일이다. 미니 스커트도 뒤에 올라오는 사람을 민망하게 한다.



463개의 계단은 정말 살벌하지만, 그 노력 끝에 올라서면 느껴지는 두오모의 공기는 향긋하고, 달콤하다.

**Tip3. 쿠폴라에 올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면, mp3에 평소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또는 냉정과 열정 사이 영화 OST를 담아가자. 여행객이 많아 생각보다 소란스럽기 때문!**



▲미켈란젤로의 언덕에서 석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석양



종종 쿠폴라에 오르기 직전 층에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프레스코화에 매료되어 정신을 잃고, 쿠폴라로 가는 입구를 놓친 채 그대로 하산하는 경우가 있다. (창피하지만 내가 그랬다) 입구와 출구가 따로 되어 있어 다시 올라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긴 줄을 처음부터 다시 서야 하고, 입장료를 또 지불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이럴 때는 다시 입구로 달려가서 “I’m so sorry”와 “I lost my wallet!!!!” 을 외치며 울 것 같은 눈망울로 줄의 맨 앞으로 달려간 다음, 입구의 직원에게 지갑을 두오모에 두고 온 것 같다며 가서 찾아봐야겠다고 설명한다. 지나치게 친절한 직원이 무전기에 대고 내 상황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기에, 더 울 것 같은 눈빛으로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 여권이 거기 있다고 울먹인다면.... (이탈리아 남자들은 한국여자에게 굉장히 친절하다는 애길 듣긴 했지만)친절하게도 계단입구까지 에스코트를 해주며 “Good luck”을 외쳐준다. 가난한 배낭여행자가 할 수 없이 쥐어짜낸 재치였다고 스스로 합리화 하긴 했지만, 나중에 돈 벌어 여행가면 두배로 입장료를 갚아주리라고 다짐에 다짐을 했으니,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ㅠ\_ㅠ)

시간이 된다면, 해질녘에 산책 삼아 미켈란젤로 언덕에 올라 석양을 감상하는 것도 좋다. 다만 기억할 것은, 한여름의 이탈리아는 해가 무척 늦게 진다는 사실(7월말 기준으로 7시를 훌쩍 넘겼었다). 미켈란젤로 언덕에 오르기 전에 간단한 샌드위치와 음료를 준비해 가면 혼자서도 분위기 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언덕에 올라가면 마땅한 가게가 없으니,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피렌체는 잠시 다녀오고 싶은 곳이 아니라 눌러 살고 싶은 곳이었다. 실제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노후를 보내러 오는 곳이기도 하단다. 여유와 예술혼이 깃든 정돈된 도시. 이탈리아를 여행한다면 꼭 한번 둘러보시길!



## 키위가 한국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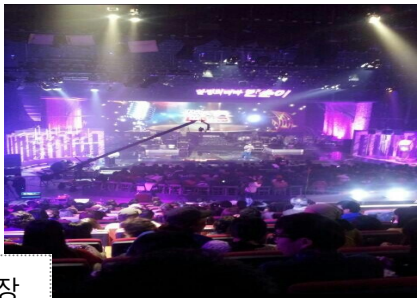
‘시간이 없다! 나는 석 달 안엔 다시 비행기를 타야 한다!’

-해외사업부 인턴 김지연

나는 올 블랙스 (All Blacks) 럭비 팀을 평생 응원했고 뉴질랜드 애국가를 마오리어(Maori)로 부를 수 있고 넓은 풀밭에 맨발로 뛰어 다니며 자랐다. 그러면서 아침엔 된장찌개를 먹고 라면에 계란 하나 풀고 파 송송 해서 먹는걸 제일 좋아하며 고등학생 땐 동방신기랑 슈퍼주니어에 열렬한 팬이기도 했다.

이런 나, 한국인이면서 키위인 내가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보러 왔다. 평생 드라마랑 쇼 프로그램에서만 봤던 그 모든 것, 그 동안 10,000km떨어져서 못 가봤고, 못 해봤고, 못 먹어봤던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진행 중!).

못 가봤던 곳: 부산. 한국에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곳은 부산이었다. 평생 뉴질랜드 바다만 봐왔던 나는 한국바다의 느낌이 어떤지 궁금했다. 비록 겨울이지만 나는 배낭 매고 제일 느린 무궁화호를 타서 (ktx는 너무 비쌌음) 5시간을 달려 부산 역에 도착했었다. 숙소를 해운대 바닷가 앞으로 잡아서 또 지하철 타고 거의 한시간을 갔다. 장기간의 이동시간 때문에 힘이 빠질 만도 한데, 나는 오히려 계속 기대감에 들떠있었다. 도착한 날은 너무 늦어져서 바로 자기로 하고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 여행을 시작했다. 달맞이 길을 쪽 걸어 등대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옆으로 보이는 아침바다는 너무 상쾌 하고 반짝거렸다. 뉴질랜드 바다랑은 또 다른 느낌의 시원함이었다. 마침 등대에 도착해선 한 30분은 멍하니 바다를 쳐다본 것 같다. 반짝거리는 바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후로 짧은 기간 안에 나는 자갈치 시장, Biffs,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해운대 바닷가를 다녀왔다. 내 두 다리와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보겠다 다짐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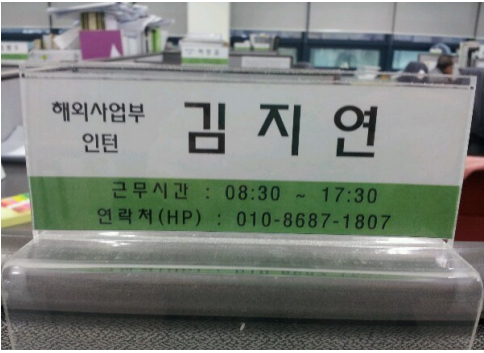
불후의 명곡 녹화장

못 해본 것, 방송 녹화 구경: 불후의 명곡. 연예인을 평생 한번도 보지 못한 나는 사촌동생이 불후의 명곡을 보러 가자는 말에 어쩔 줄을 몰랐다. 추위에 손발이 안 느껴지는데도 기대에 부풀어 방송국 앞에서 나머지 500명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녹화가 시작되고 나는 처음으로 연예인을 봤다! 난생 처음으로 본 연예인은 진행을 맡은 신동엽, 둘째는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가수 인순이, 그 후로 멋진 무대를 보여준 아이비, 인피니트H, 데이브레이크, 정동하, 알리 그리고 나르샤. 나는 특히 그날 정동하가 부른 거위의 꿈이 잊혀지지 않는다. “난, 난 꿈이 있어요~”

못 먹어본 것, 너무 많음. 옷길 수도 있지만 내가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은 길거리 음식이랑 배달되는 야식이었다. 한국이랑 달리 우리는 피자 빼곤 배달 되는 게 없다; 길거리에 파는 떡볶이나 튀김, 봉어빵, 계란빵, 호두과자 등 절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인지 비싼 스테이크나 파스타보다 뉴질랜드에선 못 먹는 음식에 눈이 간다. 또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된 가게가 있다... 바로 아이스크림 가게 Baskin Robins!!! 31가지의 맛을 다 맛보고 가리라는 다짐으로 현재 정확히 11개의 맛을 먹어봤다.



**또** 한국에서 나는...친구랑 둘이 찜질방에서 밤새 수다 떨며 계란 까먹고 식혜를 마셔보고, 독감 걸려서 병원에서 링거 맞아보고, 백화점가서 50만원짜리 옷 입어보고(결국 사고), 뷔페 가서 있는 음식 다 먹어보고, 피부과 가서 여드름 치료 받아보고, 명동, 이태원, 고속 터미널, 강남에 있는 옷 집들은 다 가보고, 가로수길 카페에 앉아서 허세 떨어보고, 친한 언니 결혼식 가서 축의금도 내보고, 눈 잔뜩 온 다음날 사촌오빠랑 나가서 축구 해보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는 빵은 집에 싸와서 다음날까지 먹어보고, 코엑스 돌아다니다가 헌팅도 당해 보고, 강남 역에서 팔짱 끼시며 뒤에 관심 있냐면서 데려가려는 아줌마한테서 탈출도 해보고, 지하철에서 내려야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에 밀려 못 내려 보기도 하고, 뉴질랜드로 유학 왔다가 떠났던 친구들도 다 만나보고...



**그**리고 지금 난...KC Cottrell 6층, 해외사업부에 인턴으로 앉아있다. 한국 와서 꼭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한국 회사 생활, 인턴이었다. 내 앞엔 번역할 자료들과, 전기집진기의 구조설계기준, 그리고 도면들이 있다. 내가 과연 이곳에 와서 무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나는 출근하자마자 찾는 것이 내 친구 NAVER사전이다. 한 문장을 열 번 정도 읽고 나서야 이해 될 때도 있고, 뉘앙스는 알겠는데 처음 보는 용어들 때때 머리 아플 때도 많다. 그래도 다 이해한다며 나에게 힘이 돼주는 우리 해외사업부 선배님들, 대리님들과 팀장님께 너무 감사하다. 신경 써 주시는 게 딱 보인다. 슷기 없는 나한테 먼저 와서 말도 걸어주시고, 점심 밥도 맨날 사주시고, 거기다 커피는 물론 요즘엔 술까지 얻어 마신다. 첫날부터 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받고 얻어 갈게 많을 거라는걸 깨닫고, 마치 스펀지가 물 빨아 먹듯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가는 데에 힘쓰기로 결심했다!

**이**젠 한국에서의 3달 중 1달이 남았다.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또 얼마나 재미있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될지 너무 너무 너무 기대된다.



**I LOVE KOREA!\*^^\***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울르그벡’ 입니다!**

-발전민수사업부 인턴 울르그벡

### 광양제철소를 다녀 와서 “현장은 지식이다”

KC Cottrell에 들어오고 나서 신기하고 배운 것들이 참 많다.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광양 출장 날이 돌아왔다. 황대리님과 인턴 친구들이 김포공항에서 아침 9시에 모였다. 다들 말로만 듣던 여수로 가게 되어서 참 신이 났다. 비행기를 탔더니 승객들은 다들 남자 분이시다. 신기하게 옆 형한테 왜 그러나 물어보더니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출장 많이 다닌다고 한다. 그 순간 우리 발전민수사업부 직원 분들도 바로 머리 속에 떠오르게 된다. 참 대단하게 보인다.

오전 열 한시 넘어서 광양 KC Cottrell 사무실에 모여서 현장으로 떠났다. 가는 길에 사무실 소장님께서 광양제철소 가이드를 해 주셨다. 그분 말씀으로는 광양 사람들은 대부분이 POSCO 제철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을 들어가서 보니, 누구나 한번쯤은 헤맬 것 같은 정말 정말 큰 공장이다. 정문으로 들어왔고 설비를 둘러보며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들었다. 현장에서 우리 회사가 건설한 신설 집진 설비들, FGD 설비, SCR 등 설비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포스코 공장도 크고 중요한 설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환경설비들도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철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설비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설비들 옥상으로 올라가서 공장들을 위에서 보더니 정말 정말 큰 공장이다. 특히 석탄에서 나온 연기를 biogas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너무 신기하다. 기술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다. 나도 이러한 공장을 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게 되었다. 자원이 없는데도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다시 재생산해서 철을 만들어서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정말 대단하다. 나도 꼭 꼭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설비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회사 사무실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저녁 식사로 광양의 유명한 회를 먹기로 했다. 식당 가서 회사 직원 분들하고 회를 먹으면서 너무 좋았다.

지인이라는 친구가 회를 정말 정말 좋아해서 많이 먹는 모습으로 남들을 웃게 만들었다. 나는 지인이를 ‘회 돼지’라고 불렀다. 나도 먹어 보니까 다른 곳 회보다 맛이 있었다. 아침에 되어서 광양시 구경을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광양 출장은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설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어떤 공정을 하고 있는 지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 짧지만 보람 있는 견학이었다.

광양제철소 사무실에서



저녁으로 회 파티!







**국** 중호 입니다. 저는 걸그룹 씨스타(SISTAR)를 사랑합니다.

-제철사업부 인턴 국중호

**설**레는 마음을 담고 지하철에 오른 첫 출근 날이다. 아마도 4명의 색다른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현재 시각 '8시 30분'이다. 본사건물은 쉽게 찾았다. 조금 떨린다. 그래도 들어가 본다. 3층이다. 걸어 올라간다. '앗' 누군가 있다. 지연이가 혼자 앉아있는 것이다. 인사를 수줍게 던져본다. "안녕하세요?" "인턴?....." 두 마디 후에 침묵이 흐른다. 역시 첫 만남의 어색함은 여기서도 이어진다.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다. 외국인이다. '어어.. 멘탈이..' 조금 긴장한 후에 혼자 생각해본다. 'my name is jong ho kook, nice to meet you .. and you?' 그래 뭐 인사 정도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찰나 울르그백의 유창한 한국말 인사가 귓가에 울린다. '하아 다행이다'. 이어서 시영이 형이 들어온다. 뭐든지 열심히 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진다. 4명은 동시에 인사를 하며 아주 아주 퍼펙트하게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호호호' 하며 9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9시 5분 전 한 명이 보이질 않는다고 생각할 즈음, 자칭 '이마 김태희'라고 부르는 지연이가 들어온다. 김태희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9시 이전에 모임으로써 우리들의 인턴생활이 시작된다.

## 번외편 '나에게 SISTAR란'

**나**의 걸 그룹 사랑은 군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더걸스(텔미)를 시작으로 소녀시대(gee) 연타로 이어지는 콤보는 나에게 심장 같은 존재였다. 제대 후, 그때처럼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걸 그룹을 찾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때는 2011년 5월 학교축제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교 축제인 만큼 드렁큰타이거, 조문근, 정인, SISTAR 등등 여러 가수들의 이름이 포스터에 붙어있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26살이라는 다소 많은 나이에 멀찌감치 서서 공연을 지켜보고 있는 나다. 조문근의 공연이 끝난 후, MC의 '다음 무대는 SISTAR입니다'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SISTAR 멤버 4명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하아... 내 무엇을 기다렸는가.. 내 이대로 여기 멈춰 서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나는 어딜 가는 것인가? 모르겠다'. 나는 지금 달리는 중이다. 매우 빠르다. 바람이 불어올 정도로 달리고 또 달린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 어느새 무대 정 중앙 3번째 줄에 손을 들고 열광하고 있는 중.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고 주위를 살펴본 후 난 혼이 빠져나간 친구가 옆에 꼭 붙어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이로써 우리의 우정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질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서 뭉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며 흔들거리게 된다. 이때 'SISTAR-PUSH PUSH'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3번째 줄의 불만이 있었던 나는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싶다. '그래 날 좀 PUSH 해줘'. PUSH PUSH에 맞춰서 난 조금씩 첫 번째 줄로 다가가는 중이다. 어느새 눈앞에서 그녀들이 날 향해 노래를 부른다. 잠시 멈춰 서서 '나의 마음은 5년간 당신들에게로 향하리~'라는 다짐을 한다. 이 날 이후 나는 SISTAR의 열렬한 팬이 된다.

**이**어지는 3일간의 교육으로 kc코트렐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같이 교육을 받고, KCMS를 견학하면서 인턴 5명은 서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었다. 교육이 끝이 난 후, 각자 배치된 부서로 이동하던, 아주 헤어지는 양 이별의 아픔을 겪은 그날 밤, 내 침대는 눈물로 적셔지고 있었다. 이전에는 간간이 메신저를 통해서 안부를 묻던 우리가 3:30 분에 함께하는 휴식시간을 갖게 되었다. 처음 휴식시간을 갖게 되던 날, 매우 어색해하면서 우리는 3층에 모일 수 있었다. "그동안 뭐했노?, 나 안 보고 싶었나?"라고 안부를 물으며 눈물바다를 기대했지만, 시크한 표정의 두 여인이 앉아있다. 나도 동참하기 위해 시크한 표정으로 '아메리카노' 한잔을 들고 아무말을 하지 않는다. 역시나 두 여인은 말 안 할 거면 올라가라고 직설적인 말을 내뱉는다. 그제서야 각자 사업부 이야기로 우리만의 꿀 같은 휴식을 취한다.



**아,** 예, 저는 재경팀에 배치 받았습니다. 저는 재경팀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재경팀 인턴 장시영



**안**녕하십니까. 재경팀에서 인턴생활 중인 장시영입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지만, 고대하던 인턴생활을 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출발이 늦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출근하는 인파에 섞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출근길이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 이번 인턴생활의 기억이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월 17일. 처음 재경팀에 인사를 드릴 때만 해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모습은 상상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이어진 회계감사는 선입견을 깨기 충분했습니다. 역동적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정신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런 분위기 어울리지 못하고 인턴이란 허울뿐인 관찰자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Peer Guide 최재혁 사원은 과거 재경팀에서 진행되었던 업무의 판단을 맡겨 팀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스왑 가치평가, 리스의 구분, 재무제표 외화환산 등을 하며 재경팀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팀이란 편제 특성상 팀원 각각이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이 었었습니다. 업무의 부분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것 이상의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인턴인 저도 어렵지 않게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인턴 생활을 통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을 알게 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눅들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가려고 합니다. 남은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인턴이 아닌 재경팀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느끼며 최대한을 배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내가 산을 사랑하는 이유

**누**군가 쉬는 날에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산에 갔다고 대답합니다. 스스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기도 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산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후 산 근처에서 살았던 것도 한 이유인 듯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모산과 구룡산, 대학교 때는 남산 근처에서 살며 부단히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재가며 산과의 쓸데없는 경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모산 정상까지 15분. 구룡산은 20분. 남산도 20분. 이 쓸데없는 기록재기를 제 몸에 날아 붙어 오르던 무당벌레를 보고 그만뒀습니다.

산에서 괜한 감상에 젖어 남긴 메모들을 다시 보면 유치하고 민망합니다. 왜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메모를 남기고, 생각을 한 것이 특별히 생산적인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소중한했고, 여전히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마음을 편하게 갖는 저만의 방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산이 있다면 슬슬 올라가보시는 것을 권유해봅니다. 어차피 내려올 것을 왜 올라가느냐고 물으신다면, 정상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게 보이는 건물들과 자동차들은 진정으로 일상에서 벗어난 기분을 줍니다. 평소와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번쯤 올라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www.kc-cottrell.com



# 맑은 하늘을 생산하는 공장??

KC코트렐이 지구를 생각하는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Global Clean Air Company

**KC Cottrell**

